

공론을 통해 본 금수현의 사회관(社會觀)

- 박정희 군정기 「거리의 심리학」(1962), 「거리의 표정」(1963)을 중심으로 -

오광수*

| 목 차 |

- I. 서론
- II. 1960년대 전반기 금수현의 사회 활동
- III. 공론에 나타난 금수현의 사회관
 - 1.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평가
 - 2. 지역문화 전통의 확립과 문화행정 비판
 - 3. 민족주의 담론의 강조와 전통문화의 세계화
 - 4. 근대화와 발전 담론에 대한 비판
- IV. 결론

| 국문초록 |

가곡 <그네>의 작곡가 금수현은 음악용어의 한글화를 집대성한 『표준음악사전』(1960)의 발간을 비롯하여 한국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런데 박정희 군정기 금수현의 사회활동에 관한 학술적 조명은 사실상 빈칸이다. 이 논문은 1962년과 1963년 『서울신문』과 『국제신보』에 잇달아 연재한 200여 편의 사회적 글쓰기, 즉 공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금수현의 사회관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 부산대 대학원 예술·문화와영상매체협동과정 박사과정 / feet11@hanmail.net

금수현은 1961년 8월 중앙정보부 시사정보실장을 맡으며 군정에 참여하였다. 이는 금수현이 박정희 군정의 정치이념과 결을 같이하였다는 의미이다. 금수현이 1962년과 1963년 두 신문에 연재한 공론에서도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주제별로 보면 크게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평가, 지역문화 전통의 확립과 문화 행정 비판, 민족주의 담론의 강조와 전통문화의 세계화, 박정희 군정기 “근대화”와 발전 담론에 대한 비판 등이다. 금수현은 공론에서 “충무공의 위대한 연유”를 알리고 “과학적으로 숭배”하기 위하여 거북선의 복원을 주장하였다. 또 그는 당시 영화의 사전검열과 한국 영화의 질적 저하 등을 지적하였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구조적인 측면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수현의 공론에는 박정희 군정의 발전 담론을 내면화한 내용 역시 확인된다.

주제어: 금수현, 박정희 군정기, 반공 국시(國是), 「거리의 심리학」, 「거리의 표정」

I. 서론

가곡 <그네>의 작곡가 금수현(1919-1992)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옛 경남 김해군 대저면) 출신으로, 음악교사 재직, 많은 노래 작곡 등 음악 관련 일 외에도 한글학회 회원으로서 한글전용 운동, 교육행정가와 언론·출판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금수현은 한국음악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는 음악용어의 한글화를 정리한 약전책 『음악말』(1945), 이를 집대성한 『표준음악사전』(1960)을 잇달아 편찬하였다.¹⁾

그럼에도 금수현에 관한 학계의 연구 성과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수준이다. 더욱이 5·16 군사쿠데타(이하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정기²⁾ 금수현의 삶과 예술 활동에 대한 학술적 조명 작업은 사실상 빈칸

1) 박현주,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격동기 서양음악용어의 번역 및 정리: 매개자로서의 작곡가 금수현의 역할 및 탈식민화 번역 전략으로서의 음악용어 한글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5, 2020, 123쪽.

2) 1961년 5·16 쿠데타부터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제3공화국 출범)까지의 시기와 관

이다. 박정희 군정기는 5·16 쿠데타부터 이른 바 “유사 민간정권”³⁾인 제3공화국이 들어서기까지의 시기이다. 금수현은 5·16 쿠데타 발발 3개월 만에 박정희 군정의 심장부이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의 시사정보실장을 맡아 직접 군정에 참여하였다.⁴⁾ 이는 금수현이 박정희 군정의 국정 철학 또는 통치 이념과 궤를 같이하였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금수현이 박정희 군정기 당시 어떠한 사유체계를 지녔고, 이를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음악인 금수현’이 크게 부각된 데 비해 그의 박정희 군정기 사회 활동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박정희 군정기는 제3공화국 이후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 및 수출제일주의와 같은 국정 기조의 토대를 다지던 시기였다는 점에서도 해당 시기 금수현의 사회관을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금수현이 1962년과 1963년 『서울신문』과 『국제신보』(현 『국제신문』)에 연재한 200여 편의 글(미니 칼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두 신문에 200편이 넘는 글을 기고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글쓰기이자 공론에 해당한다. 금수현이 두 신문에 연재한 글에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서울신문』과 『국제신보』 두 신문을 통한 금수현의 공론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박정희 군정기의 ‘음악인 금수현’이 아닌, ‘사회인 금수현’에 이 논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박정희 군정기의 금수현은 『서울신문』에 『거리의 心理學(심리학)』이란 제목으로 총 100회(1962.3.9-6월 말)의 글을, 『국제신보』에 『거리의

련해 쿠데타 날짜에 초점을 맞춰 ‘5·16 군정기’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박정희 군정기’로 쓴다. 따라서 ‘박정희 군정기’는 선거를 통해 들어선 제3공화국 이후 ‘박정희 정권기’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3) 김현주, 『5·16 쿠데타세력의 유사 민간정권 창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4)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192~195쪽.

表靑(표정)』(1963.4.25-11.4)이란 글을 총 104회⁵⁾ 각각 연재하였다. 『서울신문』에 『거리의 심리학』을 연재하던 무렵은 금수현이 중정 시사정보실장을 맡고 있던 시기이다. 또 『국제신보』에 『거리의 표정』을 연재한 시기는 그가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 출마⁶⁾를 염두에 두고 『국제신보』 고문을 맡고 있던 무렵이다. 금수현은 『서울신문』과 『국제신보』에 글을 연재하면서 필명으로 모두 실명이 아닌, 자신의 호 ‘낙초(洛初)’를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금수현은 “나의 이름을 밝히기 싫어”⁷⁾서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서울신문』에 연재할 당시 중정에 몸담은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신문』에 연재한 『거리의 심리학』은 신문에 실린 지 1년 만에 같은 이름의 단행본으로 출판⁸⁾되었지만, 『거리의 표정』은 별도의 단행본으로 간행되지 않았고 『국제신보』의 지면으로만 남아 있다.⁹⁾ 이 논문에서는 『거리의 심리학』의 경우 출판된 책자를, 『거리의 표정』은 지면상의 내용을 각각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다.¹⁰⁾

-
- 5) 『국제신보』에 연재한 『거리의 표정』은 회차 번호가 중복되는 사례가 더러 확인되고 회차 번호를 건너뛴 것도 한 차례 있어 총 회차 번호는 ‘105’이지만, 실제 연재 횟수는 104회이다. 그럼에도 지면 게재 날짜와 면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지면에 실린 원문의 회차 번호를 그대로 쓰겠다.
 - 6) 금수현은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중여당’이던 자유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 제4선거구(동구)에 출마하였는데, 당시 직업은 ‘국제신보사 고문’이었다. 『거리의 표정』의 연재를 마친 이후의 시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역대선거정보/후보자 명부)에 의하면 당시 후보자 이름은 ‘금수현’이 아닌 ‘김수현(金守賢)’으로 기록되어 있다. <http://info.nec.go.kr/>(검색일: 2021.11.29.)
 - 7) 금수현, 앞의 책, 1989, 197쪽.
 - 8) 금수현이 1951년 부산 중구 대청동에 설립하였던 새로이사(출판사)를 통해 1963년 2월 펴낸 『거리의 심리학』이다. 새로이사의 대표는 금수현의 부인 전해금이 맡았다.
 - 9) 금수현이 『국제신보』 고문을 맡을 당시 쓴 『거리의 표정』을 묶어 『거리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펴냈다는 주장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10) 금수현의 공론 200여 편의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200여 편 가운데 금수현의 사회관이 잘 드러나는 것을 가려내어 다음과 같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 ‘지역문화 전통의 확립과 문화행정 비판’, ‘민족주의 담론의 강조와 전통문화의 세계화’, ‘근대화와 발전 담론에 대한 비판’ 등 크게 네 가지이다. III장에서 이를 자세하게 다루겠다.

II. 1960년대 전반기 금수현의 사회 활동

어떤 방식이든 글에는 글쓴이의 세상을 보는 시각, 즉 사회관이 일정 정도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를 조명하려면 글쓴이의 이력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해방기부터 5·16 쿠데타와 박정희 군정기까지 금수현이 걸어온 길을 몇 가지 역사적 사건(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제식민지시기¹¹⁾ 학창시절과 일본 유학(도쿄 동양음악학교) 생활을 보낸 금수현의 해방기 음악 관련 활동이다. 그중 눈에 띄는 장면은 금수현이 음악극 창작을 주도한 점이다. 그는 해방 이후 경남공립여자중학교(당시 6년제, 지금의 경남여고) 교감을 맡았을 때 고구려 미천왕을 소재로 한 「을불의 고생」(1946)과 장보고의 이야기를 담은 「궁복의 딸」(1946)을 만들었다. 이는 금수현이 “음악을 사회와 동떨어져 순수하게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고 음악을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활용”하였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¹²⁾ 금수현의 음악극들에서 나타나는 ‘민족’과 ‘영웅 담론’ 관련 내용은 훗날 박정희 정권에서도 부각되었다.¹³⁾

금수현은 경남여중 교장 재직 시절 ‘한글 맞춤법 간소화 파동’(이하 한글 간소화 파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글 간소화 파동’¹⁴⁾은 미군정도 공인하였던, 1933년 조선어학회 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11) 일제가 한반도를 강제로 병합해 통치한 시기(1910~1945)의 역사용어와 관련해 역사학계는 ‘일제강점기’ 또는 ‘일제시기’ 등을 주로 쓰는데, 이 논문에서는 ‘일제식민지시기’로, 줄여서 ‘식민지시기’로 표기한다.

12) 남영희·이순욱,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단체의 활동과 음악극 창작」, 『항도부산』 39, 2020, 366~408쪽.

13) 박정희 군정기 민족주의 담론과 관련된 내용은 III장에서 별도로 다루겠다.

14) 한글 간소화 파동의 배경과 전말은 정재환, 「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간소화파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참조.

하 통일안)의 철자법이 어렵다며 이승만 정부가 통일안 대신 소리 나는 대로 쓰도록 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다.¹⁵⁾ 금수현은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 안에 반대하며 동료 학교장들의 반대 서명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는 그 자신이 한글학회 회원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파격적으로, 30대 중반에 학교장이 된 처지에서 금수현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점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금수현 자신의 표현처럼 “한글학회 회원”이어서, “교과서를 바꿔야”¹⁶⁾ 할 정도의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필자는 당시 한글학회의 ‘대체 불가’적인 위상을 주목한다. 그 무렵 한글학회는 우리말, 글 관련 정부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서 그 중심에 섰고, 우리말과 글을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반영하는 데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¹⁷⁾ 그래서 금수현이 한글 간소화 파동 때 이런 한글학회의 ‘힘’에 기대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였다고 본다.

금수현은 이승만 정권기인 1956년 2월 문교부 편수관을 맡는다.¹⁸⁾ “편수관이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정하고 국정교과서 편찬, 검인정 교과서의 검열 등이 주무”¹⁹⁾였다.

이승만 정권은 1960년 4월혁명으로 물러나고 장면 총리를 수반으로 한 제2공화국이 들어섰다. 하지만 정국은 여전히 불안했고 전국 곳곳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 때 억눌렸던 민심이 4월혁명을 계기로 분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당시 문교부 편수관 금수현

15) 정재환, 위의 석사학위논문, 33~90쪽.

16) 금수현, 앞의 책, 1989, 153쪽.

17) 이재은, 「해방 후 한글전용론의 주체, 방법, 범위의 문제」, 『상허학보』 41, 2014, 290~294쪽.

18) 금수현은 『나의 시대 70』(1989)을 비롯한 자신의 저작물에서 문교부 편수관을 맡은 시기를 ‘1957년 2월’로 적고 있으나, ‘1956년 2월’이 맞다. 1956년 2월 18일 자 『동아일보』 1면(인사)과 조선일보 1면(본사내방)에 나란히 ‘금수현 씨 문교부 편수관 신임 인사차 래사(來社)’가 보인다.

19) 금수현, 앞의 책, 1989, 166·356쪽.

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교육계는 교원조합이 결성되어 문교부 앞에 교원들이 연좌하는 일이 자주 있다. 자유란 한계가 없는 것인가? 자유주의자에 속하는 금 편수관에게도 이런 혼란 상태를 달갑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²⁰⁾고 하였다. 이 글을 정리하던 시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된 1989년인데, 책 속의 당시 40대 초반 금수현은 4월혁명 직후 온갖 시위의 양상을 ‘사회적 혼란’으로 인식하고 이를 여과 없이 표출하였다. 이는 5·16 쿠데타 세력 역시 쿠데타의 불가피성을 합리화하면서 4월혁명 직후와 5·16 쿠데타 직전의 “무질서한 혼란”²¹⁾을 강조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5·16 쿠데타 세력은 곧장 군사혁명위원회(훗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5개 향의 “혁명공약”을 내걸었다.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는 쿠데타 당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²²⁾

금수현은 5·16 쿠데타 직후이던 1961년 8월 중정의 시사정보실장을 맡아 군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 전후 사정에 관해 금수현이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후 김 제자가 선생님을 **최고회의에서 원하니** 어떠합니까?다. 최고회의라면 **박정희 장군의 혁명정부**다. 나는 마음속으로 **가볼 만한 데**라고 생각했다. (중략) 그곳은 뒤에 알았지만 남산의 **중앙정보부**라는 곳이였다. (중략) 다음날 발령장을 받고 보니 행정이사관 시사정보실장(**시사정보실장**-인용자)이며 발령자는 박정희 의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김종필 부장**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그는 잘 부탁합

20) 금수현, 앞의 책, 1989, 189쪽.

21) 『동아일보』, 1962.12.1, 1면, ‘민정(民政) 앞서 새 결심 김요; 자각 없으면 무질서 재판(再版) 우려; 박(朴) 의장(議長), 부산직할시 승격식서 연설’.

22) 국제신문사 사사편찬실, 『국제신문오십년사』, 국제신문, 1997.9, 147쪽.

니다 하며 직접 내가 일할 방으로 안내하고 30여 명의 직원을 모아놓고 새로운 금 실장입니다 잘 보좌하라고 했다. (중략) 시사란 시국의 흐름을 뜻하겠고 정보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겠다. 그것을 파악하여 잘된 것 못된 것을 가려 상부에 보고하는 일이겠다. (중략) 하루 다섯 건쯤 되는 보고서에는 혁명정부 자체를 반성하는 내용도 끼게 된다. (중략) “대낮에 사교춤을 추었다고 부녀들을 트럭에 실어 시민에게 보인 것은 미개한 나라에서만 있을 일이다. 라는 여론이다.” (이 여론이라는 말이 중요했다.) 이 말은 명령조로 면하기에 알맞다. (중략) **당시의 중앙정보부는 권력을 휘두르거나 누구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믿고 있었다.²³⁾

위의 글을 정리한 1989년은 5·16 쿠데타 발생 이후 3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었지만, 금수현은 여전히 ‘쿠데타’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초기 일관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금수현은 같은 책에서 ‘박정희’에 관한 호칭을 5·16 쿠데타 직후의 서술 부분에서는 ‘박정희 장군’, ‘박정희 의장’으로 쓰다가 뒷부분으로 가면 ‘박정희’로 바꾼다. ‘나의 시대 70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다음은 1961년에 일어난 5·16군사혁명이다. 주동자 박정희에 의해서인데 17년이라는 장기집권을 하자 김재규에게 사살되고 말았다.”²⁴⁾고 썼다. 그래서 금수현은 ‘보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실천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인용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금수현은 5·16 쿠데타 직후 군정 참여 요청을 받고 “마음속으로 가볼만 한 데라고 생각”하였다. “가볼만 한 데”라는 표현 자체에서 금수현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난다. 금수현

23) 금수현, 앞의 책, 1989, 192~195쪽. 인용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실겠지만,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문장의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자가 현행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거나 일부 수정하고 괄호 안에 올바른 표기와 설명을 곁들이겠다. 이와 함께 강조하고자 하는 낱말이나 글은 진하게 표시한다. 이하 동일함.

24) 금수현, 위의 책, 276쪽.

은 인용문에서 “당시의 중앙정보부는 권력을 휘두르거나 누구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믿고 있었다.”며 강조하였으나, 필자는 이를 ‘주관적 보편성의 오류’라고 본다. 중정에 관한 세상의 평가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정은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를 보좌하면서 국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정은 통상적인 정보와 수사 업무 외에도 공화당 사전준비와 같은 민정이양 준비, 헌법 개정 등을 주도하면서 정보기관을 뛰어넘는 “정부 안의 또 다른 정부”의 역할을 하였다. 중정은 ‘혁명 질서’에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일까지 하였다.²⁵⁾

그렇다면 4월혁명을 겪은 당시 지식인 사회는 5·16 쿠데타에 이은 박정희 군정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사실 5·16 쿠데타 세력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정치인들을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어내고 국정 수행을 위해 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나 전문 행정관료 등의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지식인 그룹이 정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5·16 쿠데타 이후부터였다.²⁶⁾ 5·16 쿠데타 주도 세력의 정치 및 경제 이념과 정책은 지식인의 정권 참여에 좋은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일부 지식인은 5·16 쿠데타 직후 일정 기간 쿠데타 주도 세력에 대해 기대감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민주당 정권에 참여하였던 『사상계』 역시 이집트나 남미에서 벌어진 민족주의적 군사혁명과 비교하며 5·16 쿠데타를 “혁명의 한 단계”로 이해하려고 하였다.²⁸⁾ 이런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부류와 군정에 참여했던 쪽, 이를 비판한 지식인 사이에서 간극이 생겨났다. 이를 잘 보

25) 김혁, 『발전국가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김종필의 정치활동』,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69~173쪽.

26) 김현주, 앞의 논문, 2018, 31쪽.

27) 강수택, 『박정희 정권 시기의 지식인론 연구』, 『사회와 역사』 59, 2001, 116~117쪽.

28) 김미정, 『1950~60년대 공론장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순수 참여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4~55쪽.

여주는 견해는 1962년 12월 『사상계』에 실린 장준하의 권두언, 비슷한 시기 『자유문학』에 발표된 임방현의 글이다. 장준하와 임방현은 현실 정치로부터 도피하는 지식인을 비판하면서 박정희 군정에 참여한 지식인의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²⁹⁾

금수현은 『국제신보』의 『거리의 표정』 연재를 마친 직후이던 1963년 11월 26일 제6대 총선(부산 동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다.³⁰⁾ 금수현은 총선 직후 “정치에는 초보생이라는 것을 새삼 통감”한 뒤 부산에서 서울로 터전을 옮겨 음악 관련 활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1965년 2월 YWCA강당에서 창단연주회를 연 영필하모니관현악단의 이사장을 맡았고, 1970년 7월에는 『월간음악』의 창간호를 내며 이 잡지의 발행인이 됐다.³¹⁾

Ⅲ. 공론에 나타난 금수현의 사회관

1.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평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수현은 자신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혁명

29) 강수택, 앞의 논문, 2001, 117~118쪽.

30) 그해 10월 15일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총선과 관련해 박정희는 “5·16혁명의 마지막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5·16 쿠데타-대선-총선’으로 정치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지형, 『5·16 군정기 박정희 통치이념의 논거』, 『동아시아문화연구』 53, 2013, 241쪽).

31) 금수현, 앞의 책, 1989, 199~200쪽. 금수현이 1992년 8월 작고하자 아들 금난새가 『월간음악』 발행인을 이어받았지만, 1년 만에 『월간음악』은 통권 263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월간음악』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의 아들(전재국)에 인수 되면서 1994년 1월 복간되었다(『부산일보』, 1994.1.12, 13면, ‘『월간음악』 새 모습으로 복간’).

정부”의 “(조국) 재건”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였다. 금수현은 5·16 쿠데타를 ‘역사적 당위성 및 정당성’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5·16 쿠데타에 대한 이 같은 금수현의 시각은 공론에도 반영되었다. 그는 5·16 쿠데타 1년째이던 1962년 『서울신문』에 연재한 「거리의 심리학」을 통해 다음과 같이 5·16 쿠데타를 평가하였다.

政治에 있어서 國民의 共感이 絶對的 要素가 된다. 共感할 수 있는 政治 目標을 세우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美國의 目標는 ‘自由’라는 것이오, 共產 陣營의 그것은 ‘勞動者 解放’이라는 것이다. (중략) 우리나라의 過去의 政治는 이렇게 目標가 뚜렷하지 못했다. (중략) 오늘 5·16 紀念日에 革命政府의 目標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要約하면 ‘再建’일 것이다. 허물어져가는 마음, 허물어져가는 살림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壓死한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再建’을 共感하지 않을 사람도 드물 것...³²⁾

위의 글은 글쓴이의 ‘목표’가 분명하다. 5·16 쿠데타가 ‘혁명’이며 쿠데타 주도 세력의 정치적 목표는 분명 나라를 일으켜 세울 ‘재건’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허물어져가는 살림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므로 “재건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같은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이보다 1년 뒤 『국제신보』 고문으로 재직하던 무렵 ‘5·16 쿠데타 2주년’³³⁾에 관해 쓴 논조는 사뭇 다르다.

5·16部隊라는 부대가 있다. 이것은 5월 16일 새벽 3시에 漢江橋를

32) 금수현, 『거리의 심리학』, 새로이사, 1963, 132~133쪽.

33) 당시는 5·16 쿠데타와 함께 내려진 계엄령이 1962년 12월 569일 만에 해제되고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님은 海兵부대다. 90대의 추력(트럭-인용자)에 탄 이 부대는 金浦를 떠나 서서히 서울로 향했다. (중략) ○대대장은 진지하게 취지와 작전 설명을 했다. 마지막에 “우리의 행동은 강제가 아니니 돌아갈 사병은 지금 돌아가도 좋다.”고 했으나 한 사람도 돌아간 사람은 없었다. (중략) 이 이야기를 하는 그날의 S中隊長은 이렇게 덧붙였다. “**祖國을 不正과 부패에서 구출**한다는 信念에서인지 웬 만큼 한 부상은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은 그때가 새벽 3시인데도 우리가 가는 **가두에 많은 시민**이 서있었습니다. 歡迎을 한 건지 구경을 한 건지 모르지만요…”³⁴⁾

위 글에서도 ‘혁명의 정당성’이 읽히는데, 금수현은 5·16 쿠데타에 관한 직접적인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다. 쿠데타 직후 『국제신보』의 이병주 주필 겸 편집국장과 변노섭 논설위원이 구속기소 되어 “혁명재판소”에서 같이 징역 10년형을 받고 수감 중³⁵⁾이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금수현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

이러한 가운데 5·16 쿠데타 2주년이 되자 언론의 평가는 일부 달라졌다. 4월혁명 당시 이를 대서특필하였던 지역지 『국제신보』는 사설에서 “혁명정부의 의욕이나 시책이 모두 혁명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중도에서 둔화되거나 혼선을 일으킴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국민생활에 아직도 뚜렷한 지표나 안정감을 주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³⁶⁾고 평가하였다. 『경향신문』도 같은 날 「5·16의 소산(所産)」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어둡게 하고 있는 이러한 병적 요인이 어찌면 청산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많은 국민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은 이론적인 비판에 앞서 우선 5·16을 시인, 지지해온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2년간의

34) 『국제신보』, 1963.5.16, 4면, ‘거리의 표정 (16)- 5·16 수기(手記)’.

35) 『국제신문』, 2021.9.6, 16면, ‘이병주 탄생 100주년 그를 회고한다 <2> 임현영 문학평론가’.

36) 『국제신보』, 1963.5.16, 2면, ‘5·16혁명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감정’.

군정은 국민들이 애초 5·16에 걸었던 이러한 기대를 대부분 배신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³⁷⁾고 비판하였다.

2. 지역문화 전통의 확립과 문화행정 비판

금수현의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였다. 그는 ‘먹고 살기도 힘든’ 1960년대 초반 문화예술의 존재 의미를 강조하면서 당시 문화예술이 푸대접을 받던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금수현의 시각은 『국제신보』의 『거리의 표정』에 쓴 다음 두 편의 글에 잘 녹아있다.

①**예술은 이를 이해하는 사람만의 것이다.** 부호 카네기가 로마에서 고전극을 보고 감탄하여 “이 극을 이대로 미국에서 상연하려면 얼마나 들겠소?” 했다. 이에 감독이 대답하기를 “불과 2천년이면 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중략)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술을 병(病-인용자)으로 생각하고 예술을 아는 사람은 예술을 약(藥-인용자)으로 생각하여 **오랜 세월이 흐르면 남는 건 예술뿐이다.**³⁸⁾

②**문화가 오늘날 같이 수난기에 있는 때는 별로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먹기가 바쁘는데 문화가 없고, (중략) 정치 바람이 센 때는 문화가 밀려나는 법이니 오늘 우리 환경이 꼭 그 조건에 맞기 때문이다. (중략) 다른 **정치 모임**에서는 근사한 관현악 연주가 있었는데 회의를 시작한다는 사회자의 말에 **연주도 채 끝나지 않은 오케스트라가 지하로 사라진 일도** 있었겠다.³⁹⁾

“오랜 세월이 흐르는 남는 건 예술뿐”이라고 여기던 금수현은 한 정

37) 『경향신문』, 1963.5.16, 1면, ‘인간개조운동 등 했으나 사회혁명 안 되어’.

38) 『국제신보』, 1963.11.4, 4면, ‘거리의 표정 (105)- 예술찬가’.

39) 『국제신보』, 1963.9.11, 4면, ‘거리의 표정 (76)- 문화수난기’.

치모임에서 행사 진행에 폐밀려 “연주도 채 끝나지 않은 오케스트라가 지하로 사라진 일”을 거론하며 그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금수현은 아무리 “먹기가 바쁜” 시절이라도 문화예술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금수현은 지역문화의 전통 이어가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경남과 부산의 분리, 즉 경남에 속하였던 부산시가 1963년 1월 1일부터 ‘직할시’로 승격된 뒤 문화예술단체 역시 행정기관을 따라 분리되자 경남과 부산 지역문화의 전통을 잇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국제신보』에 실린 해당 글이다.

경남음악교육학회가 발족하여 제1회 학생콩쿨(이하 콩쿠르-인용자)을 열겠다고 한다. 경남 학생음악콩쿨은 내가 알기로는 금년이 15회로, 전국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수많은 음악인을 이 콩쿨이 배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제1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경남이라는 큰집에서 새로운 경남과 부산이 얼마 전에 생긴 사실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경남 사람**’, ‘**부산 사람**’으로 엄연히 구별할는지 모르나 아직 **부산 안에 ‘경남’ 이름의 학교**가 있고 상사가 있는 마당에… (중략)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일은 고래의 음악콩쿨이나, 체육대회나, 미술전이나, 예술제 등이 행정상 분리되는 일은 막을 수 없으나, 그 횃수만은 계승하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15회 경남음악콩쿨**’, ‘**제15회 부산음악콩쿨**’로…: ‘제1회 부산, 제2회 경남예술제’ 등의 표시는 보기에 거북했기 때문이다. 얘기는 돌아가서 경남음악콩쿨은 해방 직후에 시작하여 상업도시로 알려진 부산, 경남의 음악 수준을 올려 특히 합창에서는 그 수준이 항상 서울을 능가해온 것은 많은 음악교사들의 노력과 시민의 협조에 의한 자량이 아닐 수 없다.⁴⁰⁾

40) 『국제신보』, 1963.10.23, 4면, ‘거리의 표정 (101)- 음악콩쿨의 횃수’.

부산이 오랜 기간 ‘경상남도 부산시’로 존재하다가 ‘직할시’로 분리되자 음악협회를 비롯한 문화예술단체도 경남이란 “큰집”에서 나와 별도로 생겨났고, 이에 따라 경남음악콩쿠르와 같은 문화예술 행사 역시 경남과 부산에서 각각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통이 있는 행사의 횟수를 ‘제1회’라고 잡아 새로 시작한 것은 “보기에 거북”했다고 금수현은 지적한다. 그는 해방 이후 시작된 경남음악콩쿠르가 “부산 경남의 음악 수준을 올려 특히 합창에서는 그 수준이 항상 서울을 능가해온”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금수현은 문화예술 행사의 발자취를 고려하여 음악콩쿠르의 경우 ‘제15회 경남음악콩쿠르’와 ‘제15회 부산음악콩쿠르’란 방식으로 경남과 부산에서 그 횟수를 나란히 이어가기를 원하였다.⁴¹⁾

이처럼 금수현은 문화예술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쏟았지만, 박정희 군정기 문화행정에 관한 비판에서는 본질을 비켜갔다. 군정기 이후 박정희 정권은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와 국민의 사회생활을 통제하였는데, 금수현이 이런 국가주의 담론을 내면화하였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러한 국가적 통제의 ‘근거’는 5·16 쿠데타 당시 “혁명공약”에도 국시로 명시된 반공주의였다. 반공주의는 포괄적이었다. 개인의 ‘절망’이나 ‘퇴폐’에도 용공의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래서 국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건전’하고 ‘명량’하여야 했다. 영화 검열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만희 감독이다. 1961년 영화 『주마등』으로 데

41) 금수현이 위와 같이 경남과 부산의 분리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의 전통 잇기 방안을 ‘소박하게’ 제시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경남과 부산 간 ‘간격’은 더 깊고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 행정을 둘러싼 여러 문제는 ‘부산직할시 승격’ 6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새 항만의 명칭 부여(부산신항 또는 진해신항), 신항 내 행정구역 획정과 같은 사안도 경남과 부산 간 해묵은 갈등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다만,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개념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하여 그동안의 광역자치단체 간 소모적 인 갈등 양상을 일정 부분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

뒤편 이만희는 박정희 정권기의 영화 검열과 통제를 온몸으로 겪었다. 이만희가 1963년 제작에 들어간 『7인의 여포로』는 작품의 일부 삭제를 조건으로 1964년 12월 10일 상영허가(공보부 영화과)를 얻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상영보류 처분(중정 보안과)을 받았다. 중정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이만희를 입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수사해 끝내 구속기소하였다.⁴²⁾

우리나라에서 영화의 사전검열이 법제화된 것은 영화법(1962.1.20.)⁴³⁾이 제정된 때부터이다. 이 법에 따라 영화 상영 전 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0조), 공보부 장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상영허가의 취소 또는 상영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었다(제14조, 제15조). 제3공화국의 헌법(1962.12.26. 개정)에도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⁴⁴⁾

이와 관련하여 금수현이 『서울신문』의 『거리의 심리학』에서 영화 속 표현의 문제를 다룬 내용을 들여다보자.

①六一年도 아카데미 영화상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받았다 한다. (중략) 非미국적인 悲戀을 미국적 재즈로 밸런스를 맞춘 傑作 일 테다. (중략) 「**恐怖의 報酬**」란 名作 映畫가 있었는데 그 主人公도 마지막 希望 직전에 죽는다는 것이 原作 너무 悲慘하다고 당시 우리

42) 박유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학」, 『역사비평』 99, 2012, 42~45쪽.

43)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21일 계엄사령부는 ‘영화, 연극 기타 일체의 문화예술 행사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라’는 내용의 포고 제5호를 발표하였다. 1962년 제정 영화법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었다. 검열 당국은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에서 북한군이 중공군에게 검탈을 당할 위기에 처한 동족 여자들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박유희, 위의 논문, 45~47쪽).

44) 한위수, 「영화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특히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하여」, 『세계헌법연구』 8, 2003, 83쪽.

檢閱官이 가위질해버려 主人公이 살아있었다.⁴⁵⁾

②고양이 戀愛가 興味거리다. (중략) 프랑스 映畫에서는 愛情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登場시키는 場面이 많다. (중략) 미국 映畫로는 「위더 프론트」에서 캉괘(말론 블란도)가 창밖에서 휘파람을 불면 딸(에바 마리세인트)에게 外出을 말리는 아버지 뒤 의자에 웅크린 고양이(愛情)가 있는 場面이 있었다. 우리나라 映畫에도 노골적으로 꺼안고 키스하는 畫面 대신 **아는 사람만 아는 暗示**가 더 活用되었으면 좋겠다. 例 ‘바가지를 긁으면 嫉妬’, ‘치맛자락 잡으면 關心’, ‘침을 삼키면 焦燥’, ‘눈을 지그시 감으면 成功’… (중략) 近來에도 歷史物에 同寢 場面이 나오는데 **문밖에 놓은 두 켤레의 신발보다 못한 表現**, **어색한 키스 場面**도 차라리 구두만 찍었으면…⁴⁶⁾

금수현이 위의 글 ①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열관이 마구잡이로 가위질하는 바람에 원작에서는 마지막 대목에 죽는 주인공이 우리나라 극장에서는 ‘살아있었다’. 그것도 당시 명작으로 불리던 영화를 가위질한 이유가 “(주인공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었다고 금수현은 비판하였다.

금수현은 방문 앞에 놓인 남녀의 신발 두 켤레를 그려 넣은 위의 글 ②의 삽화에는 ‘경상도 함안에 가면 “저 머시기와 거시기가 머석에서 거석했대”라도 통한다나.’를 적었다. 당시 기대에 못 미치는 한국 영화의 작품성을 꼬집은 대목이다. 그러나 금수현은 당시 한국 영화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 ‘구조의 문제’는 손대지 않았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제작환경이나 감독의 역량, 출연 배우의 연기 등에서 전반적으로 수용자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고무줄 잣대’와 같은 사전검열의 문제이다.

45) 금수현, 앞의 책, 1963, 98~99쪽.

46) 금수현, 위의 책, 124~125쪽.

위의 글 ①처럼 원작에서 ‘죽게 되어 있는’ 주인공이 한국 내 상영작에 서는 ‘살아있었다’는 사례가 생겨난 배경이다. 이는 희화화할 성질도 아니다.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전검열은 영화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대중매체 중 하나인 영화의 사전검열로 국가적인 통제에 나선 한편 국가주의 담론의 주입을 위해 1960년대에 황금기를 구가하던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박정희 군정은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근대화” 정책과 박정희의 육사(陸士) 졸업식 첫 참석(1963) 등 국가주의적 경험을 라디오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 KBS 라디오가 1961년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육사 생도 800여 명과 기간장교 400여 명의 ‘혁명 지지’ 시가행진, 이튿날 공사(空士) 생도 360여 명의 시가행진을 잇달아 생중계 방송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⁴⁷⁾

금수현은 공론에서 이 같은 박정희 군정의 ‘라디오 정치’를 옹호하였다. 그러다 보니 라디오의 기능적 측면만 다루었을 뿐 당시 라디오의 농어촌 ‘침투’라는 그 정치적 내면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다음은 해당 글이다.

요즘 農村에 라디오를 사들이는 農民의 數가 늘어간다는데 이에 대해서 이웃사람이나 識者中에서도 “사치하느니, 貯蓄心이 不足하느니…”라고 評하는 사람이 있다. 라디오라는 건 사치품이 아니라 文明의 利器다. 약간 無理해서라도 사는 것이 좋다. 이와 正比例로 서울에서는 텔레비(이하 텔레비전-인용자) 旋風이 일어나고 있다. 텔레비 放送局이 될 때 “저게 그리 바쁜 일일까?”라고 평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텔레비 放送局도 없는 나라가 무슨 행세를 할 수 있겠느냐. (중략)

47) 주창윤, 『1960년 전후 라디오 문화의 형성 과정』, 『미디어 경제와 문화』 9-2, 2011, 7~37쪽.

結局은 라디오가 確實한 文明利器지.⁴⁸⁾

위의 글에서 금수현은 1960년대 초반 라디오의 보급에 관한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과 달리 “라디오라는 건 사치품이 아니라 문명의 이기”이며 오히려 “약간 무리해서라도 사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해당 시기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펼치며 이른바 ‘라디오 정치’에 나섰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3. 민족주의 담론의 강조와 전통문화의 세계화

1) 일제잔재 청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박정희는 일본 관동군이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학교 장교 출신이다.⁴⁹⁾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정은 민족주의 담론의 ‘반일(反日)’을 반공주의의 범주로 다루었다. 심지어 박정희는 국민의 반일, 배일(排日) 감정을 의식한 듯 한일 국교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극동 반공자유국가”라는 틀에 맞춰 한일 관계의 재설정을 도모하였다. 일본의 자금으로 경제개발을 하여 북한의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과거의 원수라고 해도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한 것이다.⁵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제잔재의 청산은 요원하였다. 윤경로는 시론(2015)에서 ““해방 7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일제잔재’를 거론해야 하는 현실도 민망하다.”⁵¹⁾고 하였다. 금수현도 공론을 통하여 일제잔재

48) 금수현, 앞의 책, 1963, 54~55쪽.

49) 박정희의 만주국 장교 입관 이후 행적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한석정은 박정희가 “일본제국주의를 수용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못 박았다(한석정,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일본비평』 3, 2010, 123~124쪽).

50) 김지형, 앞의 논문, 2013, 231쪽.

51) 윤경로, 『해방 70년, 일제잔재 무엇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초점은 ‘몰지각한 국민’에 맞추어졌다. 이는 본질을 외면한 결과다. 해당 글은 다음과 같다.

①요즘 국산 파티에는 대개 술이 나오고 몇 시간 뒤에는 노래가 나온다. (중략) “**일본 노래** 불러도 좋습니까?”란 대사가 나오면 “암 좋구 말구. 음악에 국경이 있나?”의 대사가 따른다. 그리고 왜색 냄새가 푹푹 나는 20년 전의 일본 유행가가 신나게 돌아가면 박수가 따른다. 이러한 광경이 1945년 8월에 있었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몽둥이세례를 받았을 걸 생각하니 사람이란 간사하다. (중략) ‘**반공 반일**’이 한창 일 때 상부의 지시를 받은 순경 한 사람이 동민을 모아놓고 “여러분 만일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고오반소**(交番所: 파출소-인용자)로 데리고 오시오.”라고 오발을 한 일이 서울에서 있었고, (중략) 요즘이야 일본 노래를 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도 적거니와 일본말 공부책도 나와 있고, **한일회담도 한창**이니 이러한 말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일본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입에 바둑알 한 개씩을 집어넣고 싶다.⁵²⁾

②요즘 거리의 진풍경으로 아래만 보고 걷다가는 일제 때가 아닌가 착각을 일으키는 일이 있는데… (중략) **일본 사람만이 발명하고 아무도 따르지 않는 조오리**(이하 조리: 여름용 샌들 격인 일본의 전통 짚신-인용자), 일본인 발을 돼지발에 비취 그들을 ‘족발’이라 부르게 만든 분명 그 조오리다. (중략) 이 조오리를 신고 다니는 층을 보니 젊은 여성이 좀 많고 젊은 남성도 더러 있으니 이걸 봐서는 그들 자신은 여기에 **민족적 의식이라든지 모욕감** 같은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중략)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나 주위 사람은 왜 이를 말리지 못할까?** 어느 사나이가 해방 후 울산서 밀항을 하는데 해안에서 하오리(방한용 일본의 전통 옷-인용자)와 조오리를 갈아입은 것까지는 좋았

2015년 여름호, 2015, 19~20쪽.

52) 『국제신보』, 1963.8.8, 4면, ‘거리의 표정 (57)- 일본 노래’.

으나, 뱃사공이 사기꾼이라, 마산 앞바다에 배를 세웠다. “고꼬가 도 꼬자?”(여기가 어디오?) “우마야마젠이오.”(우마야마현이오.) 그자는 내러서 양팔을 저으며 가다가 늙은 농부가 새벽 밭일을 하는 걸 보고 “여기 아직 조센진이 살고 있군.” 하며 일본말을 하자 노인이 팽이를 들고 “이놈 잡아라!” 하자 조오리를 차고 달아났다니 한국서 조오리 만드는 자가 그잔지 모를 일…⁵³⁾

반일과 배일 감정은 금수현이 위의 글을 쓴 1963년 당시에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반공 반일이 한창일 때”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본 노래를 부르고, 일본의 전통 신발을 우리나라 젊은 남녀가 착용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금수현은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경찰관마저 일본말을 섞어서 말하던, 웃지 못 할 사례도 거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대상은 국민 개개인이다. 오히려 부모세대나 주위 사람들이 ‘몰지각한’ 행태를 제어하지 못함을 탓하였다. 일제 잔재의 청산에서 곁돌던 국가와 정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었다. 박정희 군정에 대해서는 “한일회담도 한창”이란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박정희 군정이 경제개발을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국교 정상화를 통하여 일본의 자금을 받으려고 한일회담을 열었던 것인 바 이에 대한 금수현의 목소리는 없다.

2) 민족주의 담론

‘반공 국시’의 연장선상에서 발현된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담론은 5·16 쿠데타 직후 군정기부터 축적되었다. 5·16 쿠데타 세력은 ‘혁명공약’에 ‘민족정기’,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과 같은 민족주의적 용어들을 담아 민족주의자임을 내세웠다. 박정희는 1962년 발간한 『우리 민족

53) 『국제신보』, 1963.8.29, 4면, ‘거리의 표정 (70)- 조오리’.

의 *나아갈 길*』에서 민족적 자의식을 강조하고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비약할 때에는 어느 경우에도 민족주의적 열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선거(1963.10.15.)를 앞두고 제3공화국의 비전을 “민족적 주체의식을 먼저 확립하고 그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한다.”, “배타적이 아닌 새로운 민족주의 이념을 강력히 부식시켜 자주와 자립을 성취한다.”로 설명하였다.⁵⁴⁾

이에 따라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초반부터 충무공 이순신, 의병처럼 조선시대 충의(忠義) 이념에 걸맞은 인물 또는 집단에 ‘민족과 구국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투영하였다. 이순신은 박정희 정권이 꼽은 ‘최적’의 역사적 인물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단’으로 합리화하고 이순신의 리더십을 통해 조선의 수군이 왜군을 크게 무찔렀던 것처럼 박정희의 지도 아래 국민이 뭉칠 것을 요구하였다. ‘당파 싸움에 희생(이순신) = 무능한 제2공화국 정권 극복(박정희)’,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순신) = 북한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영웅(박정희)’이란 식이었다.⁵⁵⁾

금수현의 공론에도 이순신을 ‘민족의 영웅·성웅’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다. 금수현이 박정희 군정의 민족주의 담론을 내면화하고 공론을 통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의 두 글에서 확인된다.

① 忠武公의 銅像이 鎭海, 釜山, 忠武에 있는데 다 直立이다. 거북선상 陣頭指揮 모습의 銅像도 있었으면 追慕의 情이 더하여질 것이다. (중략) 忠武市에 갔을 때 거북선 造船을 提言한 적이 있다. 여러

54)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 2007, 293~296쪽.

55) 전재호, 『박정희 정권의 호국 영웅 만들기와 전통문화유산정책』, 『역사비평』 99, 2012, 114~124쪽.

번 계획은 했으나 援助가 없어 좌절되었다는 말들이었다. 덕택으로 外援 없이 部落民을 데리고 10餘隻의 거북선을 만든 忠武公의 偉大性을 다시 한 번 確認할 수 있었다. (중략) 多幸히 거북선이 만들어져 보여주고 탈 수 있게 된다면 科學的으로 崇拜하게 되지 않을까.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특히 어린이들께 忠武公의 偉大한 緣由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⁵⁶⁾

②修身교육에 젖은 우리 나이는 偉人들이 소설의 주인공 같고 그 업적은 可想的으로 느껴지는 버릇이 있는데도 忠武公의 경우는 다르다. 釜山浦에 집결된 300의 倭艦船을 유인하여 統營 앞바다까지 끌고 왔을 때 섬 사이에 숨었던 우리 艦船은 一大협공을 했다. 水路의 분간을 모르게 된 敵은 언덕의 農夫에 물길을 물었다. 농부는 서슴지 않고 해협으로 빠지는 물길이라고 가리켰으나, 그 길은 실은 막힌 閑山島 앞바다였다. (중략) 태연하게 발을 갈고 있었던 農夫야말로 忠武公이 미리 보내두었던 사람이었다니, 그분의 作戰이 얼마나 세밀했던가를 알 수 있다. (중략) 발틱艦隊를 쳐부순 東郷(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1848-1934-인용자)이 환영회의 답사에서 “나를 영국의 넬슨에게 비기는 것은 이해가 가나 한국의 李舜臣 將軍에 비하는 것은 너무나 過分한 찬사다.”라고 말한 일이 있으니...⁵⁷⁾

위의 두 글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하는 것은 그 ‘시기’와 ‘배경’이다. 『서울신문』에 『거리의 심리학』을 연재하던 시기는 1962년이였다. 그 이듬해 『국제신보』에 한산대첩을 소재로 『거리의 표정』을 실은 날짜는 5월 9일 자로,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월 28일⁵⁸⁾) 직후였다. 금수현이

56) 금수현, 앞의 책, 1963, 90~91쪽.

57) 『국제신보』, 1963.5.9, 4면, ‘거리의 표정 (11)- 한산대첩’.

58)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하는 의식은 이순신이 전사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 1967년 문교부령에 의해 ‘충무공 탄신기념일’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다음백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770>, 검색일:

위의 글 ①을 쓰던 무렵인 1962년 4월 28일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기념제전에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참석하였는데, 국가원수급이 충무공 탄신기념제전에 직접 나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⁵⁹⁾

금수현은 해방 직후 민족의식을 드높이고자 고구려 미천왕을 다룬 ‘을불의 고생’(1946)과 장보고와 관련된 ‘궁복의 딸’(1946)이란 음악극을 창작한 바 있다. 이러한 금수현이 ‘이순신 > 도고=넬슨’⁶⁰⁾의 논리로 위의 글 ②를 쓴 것은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196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의 이순신 성용화 작업과 별개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수현은 중정 시사정보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쓴 위의 글 ①에서는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쳤던 거북선을 복원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그는 해당 글에서 “거북선상 진두지휘 모습의 (이순신) 동상(銅像)도 있었으면 추모의 정이 더 하여질 것”이라며 거북선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거북선의 복원이 예산 문제로 번번이 좌절된 것을 금수현은 안타깝다고 하였다. 만약 거북선의 복원이 이뤄진다면 “과학적으로 (이순신을) 숭배하게” 되고, 어린이들이 이순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금수현은 부연하였다. 외부의 도움(外援) 없이 “부락민을 데리고 10여 척의 거북선을 만든 충무공의 위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한산대첩을 이끈 이순신의) 작전이 얼마나 세밀했었가를 알 수 있

2022.4.9.).

59) 김기승, 『역사학 측면에서의 이순신 연구 방향』, 『이순신연구논총』 92, 2004, 4쪽.

60) 금수현 글 ②의 내용 가운데 사실관계를 짚을 것이 있다. 러일전쟁 때 일본의 승리를 이끌어낸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가 환영 만찬에서 이순신을 극찬했다는 얘기는 정설처럼 널리 퍼져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대 일본 해군의 장교들이 충무공 이순신을 존경하였던 사실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4, 2011, 184~232쪽 참조).

다.”는 것이다.

3) 전통문화의 세계화

금수현은 공론에서 ‘우리 것’, ‘전통문화’도 주제로 다루었다. 그는 196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킨 트위스트에 빗대어 우리나라 어깨춤의 세계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 금수현은 국악기 가운데 가야금을 개량하여 세계무대에 선보이는 데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그가 해방 이후 우리 역사와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음악극 제작에 앞장선 것처럼 세계무대를 염두에 두고 어깨춤, 가야금과 같은 전통문화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의 두 글은 이를 잘 설명하여준다.

①혁명(5.16 쿠데타-인용자) 직후 인간성에 관한 두 가지 화젯거리가 있었으니 하나는 “나는 어깨입니다.”와 “나는 춤쟁이입니다.”다. 꺾꽂이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춤은 없어질 성질의 것이 안 된다. 남녀가 안고 추는 건 비도덕적이라 생각했는지 요즘은 **튀스트**(이하 트위스트-인용자)라는 떨어져서 몸을 흔드는 춤이 우리 이웃에도 침투했다. (중략) 우리나라 춤에, ‘**어깨춤**’이란 게 있다. 장단에 맞춰 어깨만 올리면 된다. 이 춤도 앞으로 멋진 음악에 맞추어 추도록 보급하면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선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류여, 항상 즐거움과 춤을 가져라. 춤은 또 건강에 좋다. 록엔롤에서 다리를, 튀스트에서 허리를 그리고 이제 코리어가 창안한 ‘어깨춤’에서 가슴의 건강을 위해서...”⁶¹⁾

②빌토지 디 로마(이탈리아 실내합주단-인용자) 연주를 듣고 우리나라 국악 생각이 난다. (중략) 數世紀를 지난 오늘날 그 차는 너무 크

61) 금수현, 앞의 책, 1963, 210~211쪽.

다. 그들이 가지고 온 **첼발로**를 옛 악기라 하지만, 우리가 가진 **洋琴**은 첼발로의 始祖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참으로 志操 있는 **우리 國樂**이지만 자랑할 건 못 된다. 洋琴으로는 **市民會館에서 들리지 않는다**. (중략) **가야금**은 한번 통기면서 줄을 놀리면 몇 가지의 소리가 난다. 이런 特色 있는 악기는 다른 나라에는 없다. 그러나 **단칸방에서 만 알맞은 악기**다. 좀 더 크게 만들고 큰 소리가 나도록 **개량하면 世界旅行**을 할 수 있는 악기다.⁶²⁾

위의 글 ①이 『서울신문』에서 연재되던 같은 해(1962) 『동아일보』는 한 지면의 3분의 1을 할애하며 미국 헐리우드발 외신 기사를 크게 다루었다. ‘불과 6개월 만에 명성과 재산을 다 얻은 청년 처비 체커의 벼락부자 이야기’⁶³⁾인데, 이는 몸을 비틀면서 쉽게 출수 있는 트위스트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점을 반영한 결과였다. 금수현 역시 위의 글에서 트위스트에 관해 “(남녀가) 떨어져서 몸을 흔드는 춤”이어서 “비도덕적”이지 않은 데다 미풍양속을 헤치지 않는 범주에 속하며, 춤동작은 “아주 단순한 점이 대중적”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 춤 가운데 “장단에 맞춰 어깨만 올리면 된다.”며 어깨춤을 세계시장에 보급하자고 제안하였다. 금수현은 위의 글 ②에서 “참으로 지조 있는 우리 국악” 양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작 “양금으로는 시민회관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였다. 이와 함께 가야금처럼 “특색 있는 악기는 다른 나라에는 없다.”면서도 “단칸방에서 만 알맞은 악기”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금수현은 더욱 큰 소리를 내도록 가야금을 개량하면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악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62) 금수현, 위의 책, 94~95쪽.

63) 『동아일보』, 1962.3.23, 4면, ‘트위스트 춤 선풍; 백만장자 만들고 창안자는 어리둥절; 밤새우는 유행도’.

4. 근대화와 발전 담론에 대한 비판

5·16 쿠데타 세력은 1961년 5월 20일 “군사혁명 구호”로 ‘간접침략(間接侵略)의 분쇄’를 결정하였다.⁶⁴⁾ 김종필 중정부장은 이듬해 4월 간첩자수기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면서 “간접침략은 정치의 부패와 관리의 부정과 국민생활의 빈곤과 사회적 무질서에 가장 교묘하게 편승하여 감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⁶⁵⁾ 5·16 쿠데타 세력은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결하려면 ‘실력배양’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 여기서 ‘실력’은 ‘경제력’이었다. 박정희 군정에서 경제의 재건은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하였지만, “공산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첩경”이기도 하였다.⁶⁶⁾ 박정희 군정의 “근대화” 정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발전 담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은 원조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에 나서는 한편 수출 증대 정책을 채택하였다. 결국, 수출 증대를 통한 수출입국(輸出立國) 달성을 위해 ‘수출 제일주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⁶⁷⁾

이처럼 수출 제일주의 경제정책이 펼쳐지면서 산업박람회와 같은 우리나라 무역전시산업도 싹을 틔웠다. 금수현의 공론에도 이러한 내용이 보인다. 그가 산업박람회,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다루었다는 것은 박정희 군정의 “근대화” 정책과 발전 담론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컸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産業博覽會를 마지막 날 오후에 갔더니 친구 여럿을 만났다. (중

64) 『동아일보』, 1961.5.21, 1면, ‘간접침략의 분쇄; 군사혁명구호를 결정’.

65) 『동아일보』, 1962.4.10, 3면, ‘간접침략은 부패에 편승; 혁명과업 남의 일 아니다’.

66) 김지형, 앞의 논문, 2013, 228~229쪽.

67) 신장철,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원조경제의 탈피와 수출드라이버 정책의 채택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론집』 66, 2015, 14~15쪽.

략) **국산품의 향상**이 눈부신 데 우선 찬사를 보내고 다음을 위해서 촉
 잡는다면 製作工들의 勞苦를 보람 있게 못하는 그 **시골티 디자인들**
 이다. 여기에 비하여 **僑胞館 물건은 비행기를 타본 티가 나니**, 企業主
 여 비행기를 타고 싶거든 製作 前에 設計에 全 創作力을 기울이기를.
 (중략) 여기서 異彩로운 아이디어(?)는 水族館이라는 곳인데 추어탕
 집에서 본 것보다 작은 미꾸라지와 잉어와 목욕하는 사람이 있는 도
 깨비 장난. 追徵金만 안 받았어도 보통 장난으로 알 텐데...⁶⁸⁾

수출 제일주의가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이던 1960년대에는 산업디자
 인이 등장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 상공 미술전람회와 한국무역박람회
 가 열렸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도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겨났다. 1963
 년 금성사에 ‘공업 의장과’라는 산업디자인 전담부서가 새로 생기자 다
 른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디자인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디자이너를 채용
 하였다. 그렇지만 디자인의 품질은 낮았다.⁶⁹⁾ 금수현도 위의 글에서 산
 업박람회에서 확인한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이너 “제작공들의 노고
 를 보람 있게 못하는 시골티 디자인”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달리 “교
 포관(僑胞館) 물건은 비행기를 타본 티가” 난다며 한국의 기업주들에게
 세련된 산업디자인을 창출하라고 독려한다.

박정희 군정이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빈곤 문제
 를 해결하려고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펼치던 무렵 우리나라의 산림은
 민둥산이 되다시피 하였다. 생계형 도벌이 극성스러웠던 것이 주요 원
 인 중 하나였다. 취사, 난방을 해결하고 쌀이나 일용품을 사려고 땀값을
 시장에 팔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정희 군정은 1961년 산림법을 제정, 시
 행하며 산림녹화 사업을 밀어붙였다. 군정은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의

68) 금수현, 앞의 책, 1963, 178~179쪽.

69) 김다은, 「시대 변화에 따른 디자인 영역 변화에 대한 고찰: 디자인 대학 학과명 변화
 와 디자인 직업 분야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35~37쪽.

일환으로 이 강산을 푸르게 가꾸는 것은 혁명정부의 기본정책” 또는 “별거벗은 산은 흥흥한 민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라고 강조하였다. 박정희 군정은 황폐한 산림을 빈곤, 곤궁의 상징으로 여겼다. 국민의 빈곤, 곤궁은 곧 간접침투를 부르는 것이었다.⁷⁰⁾

금수현은 공론에서 박정희 군정의 산림녹화 사업, 즉 산림법 시행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금수현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군정의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나무를 잘라야 하는 현실을 나란히 다루었다. 다음의 두 글에는 이러한 금수현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①기차에서 보니 산이 제법 푸르다. 앞에 앉은 두 사람의 주고받은 말이 묘하다. “이 사람아, **혁명 후 녹화사업의 효과**가 상당한데.” 다른 사람 “오월이니까 푸르지” (중략) “**베려고 해야 뿔 나무가 없으니** 제대로 녹화가 된다.”는 것이 오히려 알맞은 말일지는 모른다. **혁명 후 장작 사용이 제한**되고 건축에는 주로 시멘트를 쓰게 됐으니…⁷¹⁾

②산을 내려 주막에 앉으니 동네 어른이 말을 건다. “양복 입고 성묘 오는 사람은 드물지요.” 나는 이 말을 비꼬아 하는 말로 들었더니 “산에 올라가 보면 몇 해를 잊힌 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을 베어주지요.” 나도 말을 걸었다. “내가 어릴 때는 저 묘가 안 보였는데, 이젠 똑똑히 보이게 되었으니 **나무를 지독하게 잘라 버렸군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니었다면 벌써 굶어죽었지요.**” “산지기가 가만있었나요?”, “**산지기가 무슨 소용이오. 죽음과 삶의 투쟁인데.** 한번은 산림주사가 와서 큰소리치다가 나무꾼들이 칠팜쿨로 나무에 달아맨 일이 있었지요.”⁷²⁾

70) 강정원,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림법 제정과 녹화사업』, 『한국근현대사연구』 92, 2020, 145~158쪽.

71) 『국제신보』, 1963.6.4, 4면, ‘거리의 표정 (27)- 보리밭 위에 다리’.

위의 글 ①에는 “혁명 후 장작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산림 황폐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땀감으로 팔려는 생계형 도벌이 극성을 부리자 이를 법으로 금지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베려고 해야 벨 나무가 없”는 판국이였다. 위의 글 ②에는 더욱 절박한 현실을 담고 있다. 금수현이 표현한 것처럼 “죽음과 삶의 투쟁”인 형국이니 산지기라도 생계형 도벌을 막을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IV. 결론

금수현은 음악용어의 한글화에 공헌하여 한국음악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작곡가이자 음악가이다. 그는 한글전용 운동과 교육행정가, 언론·출판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정기 금수현의 사회 활동에 관한 학술적 조명은 사실상 빈칸이다. 이번 연구는 금수현에 관한 ‘빈칸’을 채워보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금수현이 박정희 군정기이던 1962년과 1963년 『서울신문』(『거리의 심리학』)과 『국제신보』(『거리의 표정』)에 연재한 200여 편의 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금수현의 사회적 글쓰기이자 공론에 해당한다.

금수현은 5·16 쿠데타 직후 1961년 8월 중정의 시사정보실장을 맡으며 군정에 참여하였다. 그가 중정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은 그가 박정희 군정의 정치이념과 결을 같이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서울신문』과 『국제신보』 두 신문에 연재된 금수현의 공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이다. 금수현은 5·16 쿠데타를 ‘(조국)

72) 『국제신보』, 1963.9.30, 4면, ‘거리의 표정 (89)- 마지막 나무’.

재건'의 명목으로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식하였고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는 말년에 쓴 『나의 시대 70』(1989)에서도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금수현은 박정희 군정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금수현이 '보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실천한 인물로 판단한다.

둘째는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포함한 문화행정 비판이다. 금수현은 외국 유명 영화의 원작에서는 '죽게 되어 있는' 주인공이 국내 상영작에서는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검열관이 "(주인공이) 너무 비참하다"며 영화를 가위질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금수현은 한국 영화의 기대치 이하 대목을 지적하면서도 '구조의 문제'는 비판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은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와 국민의 사회 생활에도 국가적인 통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영화 속 등장인물은 명랑하고 퇴폐적이지 않아야 했다. 이러한 문화행정에 금수현이 침묵한 것은 박정희 군정의 국가주의 담론에 동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족주의 담론에 관한 것이다. 박정희 군정은 '반공'을 최상위 정치이념인 국시(國是)로 천명하였다. '반공 국시'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로 연결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충무공 이순신의 '민족 구국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친일 이미지를 희석하려고 했다. 금수현의 공론에서도 이순신의 '성웅화'가 확인된다. 금수현은 "충무공의 위대한 연유"를 알리고 "과학적으로 숭배"하기 위하여 거북선을 복원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박정희 군정의 민족주의 담론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근대화"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발전 담론에 대한 비판이다. 박정희 군정은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결하려면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이 '실력'은 '경제력'이었다. 이에 따라 박정희 군정은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산업박람회와 같

은 무역전시산업도 싹을 틔웠다. 금수현의 공론에서도 당시 산업박람회, 산업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확인된다. 박정희 군정의 발전 담론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컸다는 것이다.

물론 200여 편에 달하는 두 신문의 전체 연재 글 가운데 주제별로 일부만 이번 논문의 논의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것으로 금수현을 재단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1960년대 초반, 박정희 군정기 금수현의 사회 활동에 관한 학술적 평가의 일부를 내놓는 것이 목적임을 거듭 밝힌다.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국제신문사 사사편찬실, 『국제신문오십년사』, 국제신문, 1997.9.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 『거리의 心理學』, 새로이사, 1963.
 강수택, 『박정희 정권 시기의 지식인론 연구』, 『사회와 역사』 59, 2001.
 강정원,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림법 제정과 녹화사업』, 『한국근현대사연구』 92, 2020.
 김기승, 『역사학 측면에서의 이순신 연구 방향』, 『이순신연구논총』 2, 2004.
 김다운, 『시대 변화에 따른 디자인 영역 변화에 대한 고찰: 디자인 대학 학과명 변화와 디자인 직업 분야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미정, 『1950~60년대 공론장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순수-참여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4, 2011.
 김지형, 『5·16 군정기 박정희 통치이념의 논거』, 『동아시아문화연구』 53, 2013.
 김혁, 『발전국가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김종필의 정치활동』,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 김현주, 「5·16 쿠데타세력의 유사 민간정권 창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남영희·이순욱, 「해방기 부산지역 음악단체의 활동과 음악극 창작」, 『항도부산』 39, 2020.
- 박유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할」, 『역사비평』 99, 2012.
- 박현주,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격동기 서양음악용어의 번역 및 정립- 매개자로서의 작곡가 금수현의 역할 및 탈식민화 번역 전략으로서의 음악용어 한글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5, 2020.
- 신장철,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와 초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원조경제의 탈피와 수출드라이버 정책의 채택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론집』 66, 2015.
-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 2007.
- 윤경로, 「해방 70년, 일제잔재 무엇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2015년 여름호, 2015.
- 이재은, 「해방 후 한글전용론의 주체, 방법, 범위의 문제」, 『상허학보』 41, 2014.
- 전재호, 「박정희 정권의 호국 영웅 만들기와 전통문화유산정책」, 『역사비평』 99, 2012.
- 정재환, 「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간소화파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주창윤, 「1960년 전후 라디오 문화의 형성 과정」, 『미디어 경제와 문화』 9-2, 2011.
- 한석정, 「박정희, 혹은 민주국관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일본비평』 3, 2010.
- 한위수, 「영화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특히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하여」, 『세계헌법연구』 8, 2003.

2. 자료

- 『경향신문』
 『국제신보(『국제신문』)』
 『동아일보』
 『부산일보』
 『조선일보』

| Abstract |

Gum Su-hyun's View of Society as a Public Opinion
- Based on "Psychology of Street"(1962) and "Street
Expression"(1963) During the Park Chung-hee's Military Junta -

Oh, Kwang-Soo

Composer Gum Su-hyun of the song “Swing” left a great mark in Korean music history by translating and establishing Western music terms,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the Standard Music Dictionary*(1960). However, the academic lighting of Gum Su-hyun’s life and art during the Park Chung-hee’s military junta is virtually blank. This paper studied more than 200 social writings, or public opinions, that were serialized in 1962 and 1963 in *The Seoul Shinmun* and *The Kookje Sinbo*. Through this, I tried to clarify Gum Su-hyun’s view of society.

In August 1961, Gum Su-hyun served as the head of the current affairs information office of Korea Central Intelligence Agency(KCIA). This means that Gum Su-hyun was in line with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Park Chung-hee’s military junta. This is also confirmed in the public opinion published in two newspapers by Gum Su-hyun in 1962 and 1963. By subject, the evaluation of the May 16 military coup, criticism of cultural administration, the emphasis on nationalist discourse, and criticism of the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discourse of the Park Chung-hee’s military junta.

Keywords: Gum Su-hyun, Park Chung-hee's military junta, Anti-Communist National Policy, “Street Psychology”, “Street Expression”